

謹賀新年

##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

### 교과서 통해 다음세대 애국심 고양해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장 박운옥

존경하는 보훈가족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저희 재일학도의용군들이 6·25전쟁에 참전한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저희 노병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사라져 가기에 지난해에는 2002년에 발간된 '재일동포 6·25참전사'를 '재일학도의용군 6·25전쟁 참전사'로 재발간하여 대학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비록 육체는 언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고 그 애국심을 실천으로 옮겼던 우리의 애국정신과 호국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책에 고스란히 남아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본부에서는 참석을 못하였지만 83명의 동지들이 희생된 '장진호전투 전사자 추모위령제'를 일본 동경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으며, 일본에 남아 있는 유족들

을 위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국충정의 본보기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참전기인 '조국이 부른다'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재수록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를 통해 애국심을 배우고 남북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우리 단체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힘을 합쳐 극복해내지 못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비극이라 불리는 코로나19 위기에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변화·혁신,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

4·19민주혁명회장 박종구

설렘과 기대로 신축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은 국민 모두가 더 크게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4·19혁명 정신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이루어 코로나 종식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유례없이 빠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저력으로 2021년 새해를 4·19혁명 60주년을 지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4·19혁명이 단지 장엄했던 지난 역사가 아니라 현재형이자 미래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4·19민주혁명회 역시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19혁명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4·19혁명의 주역이었던 회원 대부분이 80세가 넘는 고령에 접어들어 회원들의 노후의 삶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실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체 수익사업을 비롯한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호국·독립유공자와 같이 민주유공자에 대한 격 높은 보상과 예우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변화를 촉구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유공자의 발걸음을 비롯하여 국립4·19민주묘지의 정비,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새로운 길을 찾고 그 변화의 길에 앞장서는 공법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4·19 정신 계승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정중섭

희망찬 신축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의 서광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역사는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1960년 그날의 민주영령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부정과 불의에는 반드시 항거하며, 부패한 권력은 민중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과 함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4·19혁명을 살아있는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정의의 4·19혁명 정신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고, 4·19혁명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으로 4·19혁명의 역사가 영원토록 뻗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

니다. 새해에도 4·19혁명희생자유족회는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고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단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단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국가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듯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그분들의 정신과 뜻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혁명 유공자 예우와 4·19혁명 기념일의 국경일 지정 등 현안 문제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해도 시린 바람을 견디고 따사로운 훈풍이 가득한 건강하고 행복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한 단계 더 도약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박종길

존경하는 무공수훈자회 회원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된 한 해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이 제한되었고,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은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장례식장 출입이 제한됐지만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근조기 증정 9,000여 회, 태극기 증정 10,000여 회, 장례의전 선양단 조문 2,300여 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해드렸습니다.

제5회 장진호전투영웅 추모행사는 문예작품공모전과 장진호전투 전사 심포지엄, 사진 전시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에 열일곱 번째 지부를 설립했고, 12월에는 서울 강서구에 '호국보훈회관'을 개관하여 본부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중앙회관 마련이라는 12만 회원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길러온 인내심과 애국충정,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로 새해에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우리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